**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서술하시오(1000자)**

**[무엇인지 궁금하면 일단 해보자]**

저는 호기심과 일단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호기심과 일단 해보자를 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하고 직접 경험을 하면서 원리를 깨우치거나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호기심을 느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고민만으로 해결 안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기 위해 호기심을 느끼는 것을 실제로 시도를 해보고, 직접 피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작년 겨울,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달리는 도중에 자동차 문이 열리는가?”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는 “달리는 도중엔 차문이 열리니 절대 열릴 수 없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친구는 “진짜 열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혼자 운전을 하며 돌아오는데 계속 머릿속에 “진짜 열릴까?” 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속도가 나면 차문이 자동으로 잠기는데 열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으나 열린다라는 친구 말에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차가 다니지 않는 길로 들어서 달리는 도중 문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열리지 않을거라는 생각과 달리 닫혀 있던 문은 살짝 열렸고 계기판에도 문열림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차를 세우고 문을 닫은 뒤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역시 직접 해봐야 뭔지 알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열릴까 라고 계속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직접 분해 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문 손잡이가 와이어로 연결되어 동작하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라고 추측만 해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생각만 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해 이론적으로만 알거나 부정확하게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직접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궁금한 것이 생기면 해보고 분석을 합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하시오 (1000자).**

[FCA(AEB)가 꼭 필요했다]

첫 번째 기준으로 ‘운전자 안전을 생각했는가?’입니다.

제 경험 상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은 안전입니다.

2020년까지 전 차종에 FCA 기능을 탑재한다는 뉴스를 보고 운전자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년 가을 출근을 하기 위해 차를 운전해서 회사로 가고 있었습니다. 상습 정체구간을 접어들면서 저도 모르게 졸음 운전을 하다 앞차와 추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서행으로 추돌사고가 나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제 아반떼는 라디에이터가 찌그러져 전면부 전체를 교체해야했습니다.

사고 이후 항상 AEB기능이 제 차에 없다는 것이 아쉬웠고 ‘다음에 차를 구매할 땐 꼭 기능을 탑재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내년부터 전차종에 FCA 기능을 추가시작’이라는 뉴스를 보고 단순한 수익보다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공장]

두 번째 기준으로 ‘직원 근무환경 개선의지’입니다.

울산1공장을 새로 지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고 직원 근무환경 개선의지가 강하다고 느꼇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선 근무 만족도와 근무 효율은 매우 떨어집니다. 특히 여름에 냉방시설이 미비한 공장에서 일을 한다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매학기 방학이 되면 울산1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지만 특히 여름에 더 힘들었습니다. 공장 전체가 더워 퇴근하고 집에 가면 더위 먹은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 공장에서 근무를 하지 못해 기억 속 공장은 찜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공장 전체에 에어컨이 동작해 시원한 환경에서 더위를 먹으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회사라면 저도 높은 근무 효율로 일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해당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저는 ‘개발직무는 다른 부서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것을 알고 있다는 점과 프로젝트를 끝내고 마침내 해냈다 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개발연구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 소통과 협력]

16년 4월부터 차량용 무선충전기를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하였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슈들이 발생했고 또 해결해나갔습니다. 그러다 개발품질검증 종료 1주일 전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원인은 금방 파악되어 해결했지만 3주가 걸리는 검증을 고객사 일정 문제로 1주만에 다시 끝내야 했습니다. 개발 품질 부서에서는 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1주일 안에 모든 검증을 끝내주겠다 라고 하였고 저희도 개발 품질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테스트를 도와 다행이 일정 안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다면 3주나 걸리는 테스트를 1주일 안에 끝낼 수 없었을겁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부서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살리기 위해 개발연구 직무에 지원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오는 성취감]

학부4학년 때 졸업 작품으로 적외선을 이용한 감시카메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조원은 저를 포함한 2명이었습니다. 저는 SW기능 설계/개발 전체를 맡았고 다른 한명은 HW와 기구 제작을 맡았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능구현을 하면서 센서의 한계, 아이디어의 한계, 교수님의 요구사항 변경, 조원과 의사소통 부재 등을 겪으며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조원과 의사소통을 하며 오해를 풀고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하며 기능을 추가하며 작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설계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제품을 마지막까지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은 엄청 크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은 다음에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발연구 직무에 지원하였습니다.